

현안과 과제

■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목 차

■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2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백 다 미 선 임 연 구 원 (2072-6239, dm100@hri.co.kr)

Executive Summary

<요 약>

■ 개요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휘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실질소득, 소비, 분배 등 가계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가계의 경제 심리 및 계층 인식이 위축되었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첫째,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거 조사 대비 확대되었으며, 40대 자영업자가 특히 계층 상승 가능성에 부정적**이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3년 75.2%, 2015년 81.0%에서 2017년 83.4%로 상승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소득 가구보다는 중·고소득 가구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운데, 특히 **40대 자영업자 중 92.9%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80.6%,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88.4%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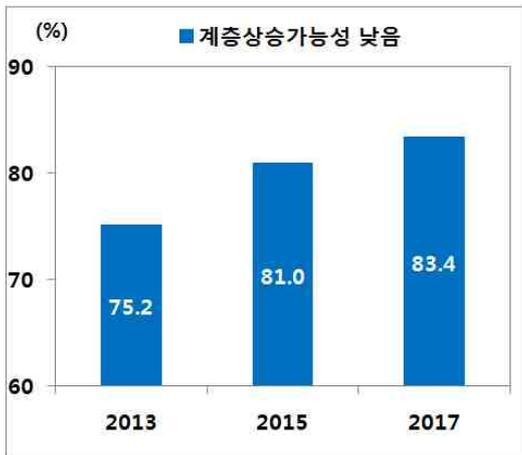
둘째, **국민 다섯 명 중 네 명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높다는 응답은 2015년 24.0%에서 2017년 19.8%로 하락하였다. 월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특히 40대 자영업자 중 96.4%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21.3%,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17.3%만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84.1%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높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5년 82.2%에서 2017년 84.1%로 상승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자리의 질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며, 40대 자영업자 역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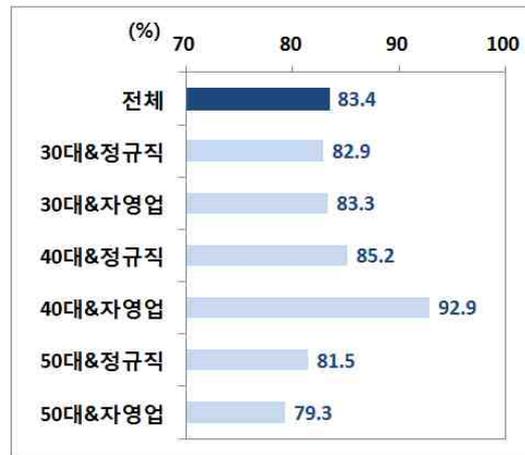
81.2%,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88.4%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중이 52.4%로 가장 높았고, 2015년 46.7% 대비 5.7%p 상승하였다.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26.8%,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7%를 차지하였다. 성별, 월소득수준, 연령, 종사상지위, 고용안정성 등 응답자 특성과 관계없이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 계층상승 가능성 : 추이 >



< 계층상승 가능성 : 연령과 종사상지위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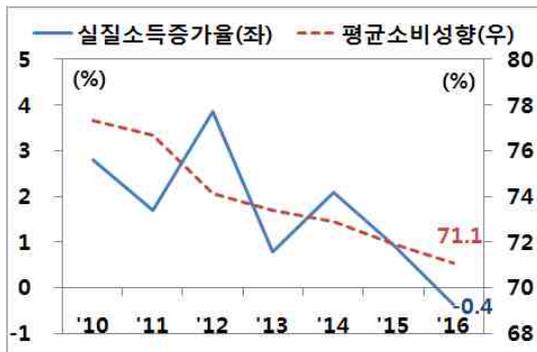
■ 시사점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으로 사회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좋은 일자리의 창출, 교육 양극화 해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재취업 일자리 확대, 준비된 창업으로의 안내, 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40대 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고용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검토와 재정비로 노동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1. 개요

- (연구배경) 최근 가계의 소득, 지출, 분배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가계의 경제 심리 및 계층 인식 위축이 우려
 -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 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 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휘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짐¹⁾
 - 가계 실질소득증가율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 추세에 있고, 5분위배율이 2016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가계의 소득, 지출, 분배 지표가 모두 악화
 - 2016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증가율은 -0.4%로 실질소득이 감소했으며, 평균소비성향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6년에 71.1%를 기록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²⁾ 역시 2008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 반등하며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된 모습

<가계 실질소득증가율과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 5분위배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 (연구목적) 설문조사를 통해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
 -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4월 5일~4월 14일까지며, 표본수는 총 805명으로 최대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45%임
 - 응답자 특성은 <별첨> 참조

1) 현대경제연구원(2013),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해야', 현안과과제 1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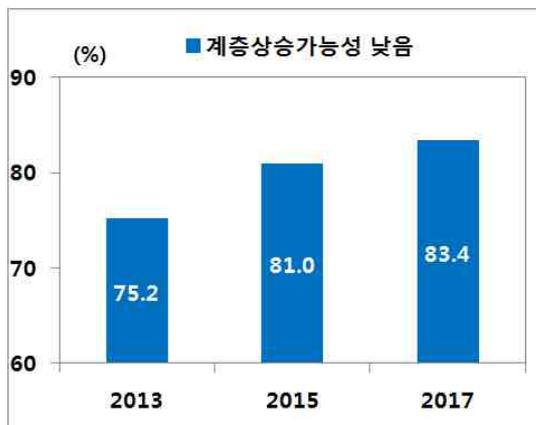
2) 5분위배율은 (상위 20%(5분위) 소득/하위 20%(1분위 소득))*100,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

2.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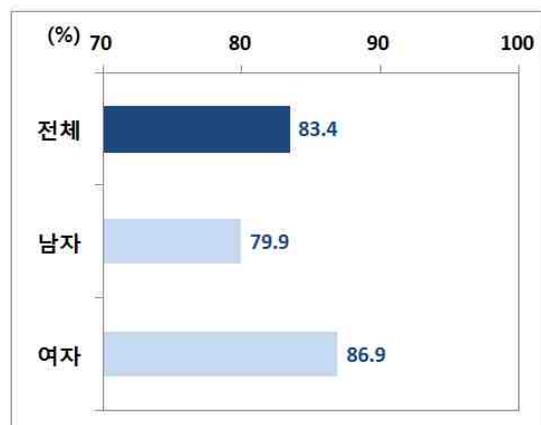
①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거 조사 대비 확대되었으며, 40대 자영업자가 특히 계층상승 가능성에 부정적

- (전체)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3년 75.2%, 2015년 81.0%에서 2017년 83.4%로 상승
 -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3.4%는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답함.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16.6%에 불과
 - 부정적인 응답률이 2015년 설문조사 때의 81.0%보다 2.4%p 상승
- (성별 및 월소득수준별)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소득 가구보다는 중·고소득 가구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
 - 성별로 보면, 남성 79.9%, 여성 86.9%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월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가구 80.7%, 300~499만원 가구 84.9%, 500만원 이상 가구 84.6%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계층상승 가능성 : 추이³⁾ >



< 계층상승 가능성 : 성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3) 2013년, 2015년 설문결과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함.

현대경제연구원(2013),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해야’, 현안과과제 13-45호.

현대경제연구원(2015),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안과과제, 15-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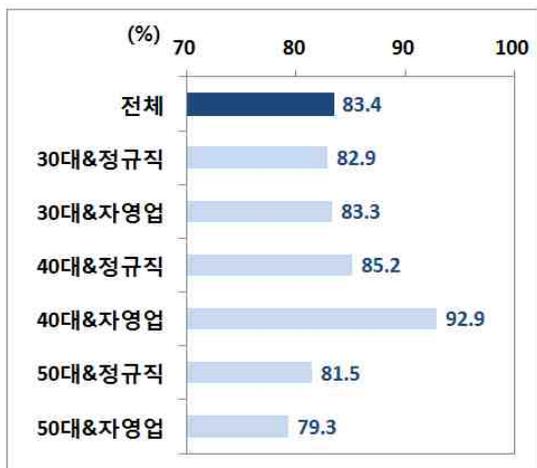
- (연령과 종사상지위별) 특히 40대 자영업자 중 92.9%가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

- 연령별로 보면, 20대 80.6%, 30대 83.8%, 40대 86.1%, 50대 이상 82.7%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종사상지위별로는, 정규직 82.6%, 비정규직 83.5%, 자영업 86.7%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응답자를 연령과 종사상지위별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40대 자영업자의 92.9%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여 다른 응답자보다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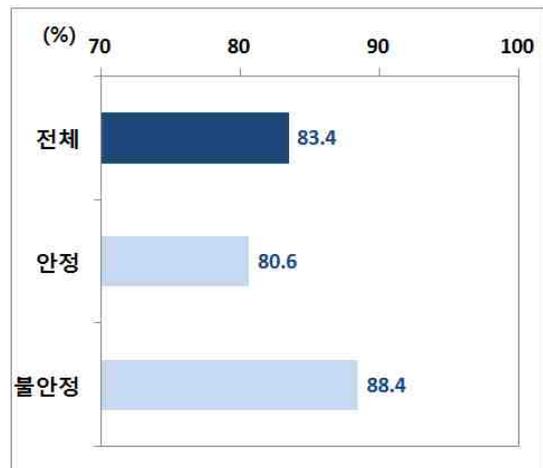
- (고용 안정성별)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특히 부정적으로 응답

-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80.6%,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88.4%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전반적으로 모두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나, 고용 안정성 여부에 따라 부정적인 응답이 약 7.8%p까지 격차가 발생

< 계층상승 가능성 : 연령과 종사상지위별 >



< 계층상승 가능성: 고용 안정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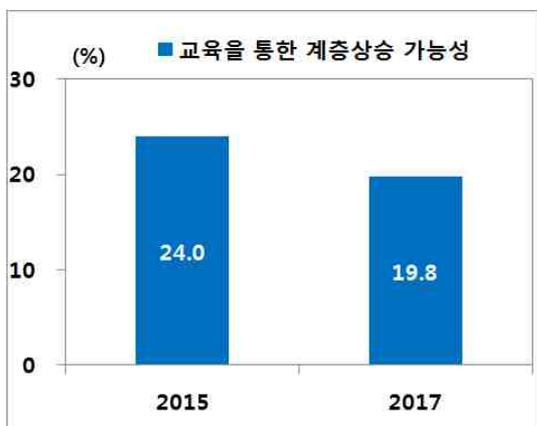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는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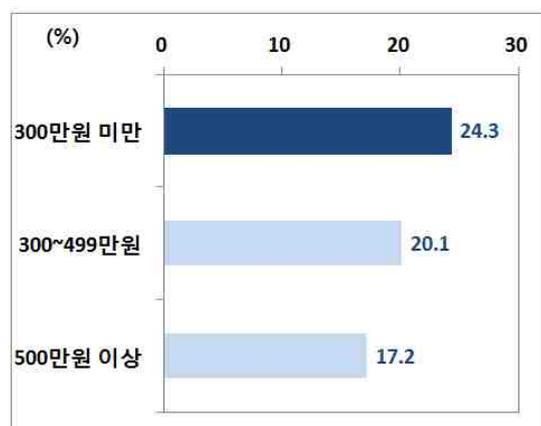
② 국민 다섯 명 중 네 명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고 느낌

- (전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기회가 높다는 응답은 2015년 24.0%에서 2017년 19.8%로 하락
 - “과거와 현재, 미래를 비교할 때, 공부를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9.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부정적인 응답률은 80.2%
 - 긍정적인 응답률이 2015년 설문조사 때의 24.0%보다 4.2%p 하락
- (성별 및 월소득수준별) 월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 성별로 보면, 남성 21.9%, 여성 17.6%만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
 - 월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가구 24.3%, 300~499만원 가구 20.1%, 500만원 이상 가구 17.2%만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
 - 즉, 월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보다 높은 가구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 : 추이4) >



<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 : 월소득수준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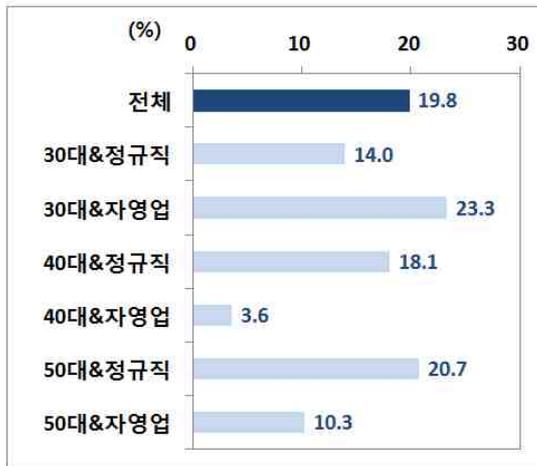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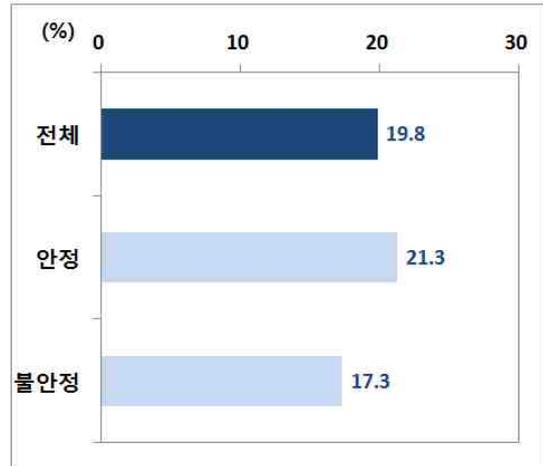
주 : %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비율.

- (연령과 종사상지위별)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타난 응답계층은 40대 자영업자
 - 연령별로 보면, 20대 25.4%, 30대 18.1%, 40대 15.9%, 50대 이상 20.3%만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
 - 종사상지위별로는, 정규직 19.1%, 비정규직 23.3%, 자영업 19.0%만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
 - 응답자를 연령과 종사상지위별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40대 자영업자의 3.6%만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응답자보다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
- (고용 안정성별)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특히 부정적으로 응답
 -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21.3%,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17.3%만이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응답
 - 전반적으로 모두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

<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 : 연령과 종사상지위별 >



<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 : 고용 안정성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비율.

4) 2015년 설문결과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함.

현대경제연구원(2015),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안과과제, 15-29호.

③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약 84.1%가 부정적으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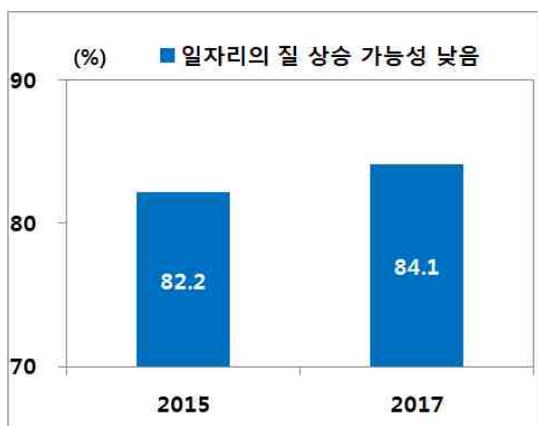
- (전체)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높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5년 82.2%에서 2017년 84.1%로 상승

-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비정규직 같은 나쁜 일자리에서 정규직 같은 좋은 일자리로 옮겨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4.1%는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답함.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15.9%에 불과
- 부정적인 응답률이 2015년 설문조사 때의 82.2%보다 1.9%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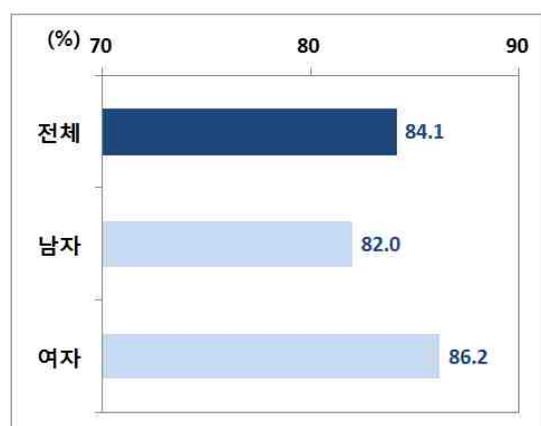
- (성별 및 월소득수준별)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자리의 질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

- 성별로 보면, 남성 82.0%, 여성 86.0%가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의 질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월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가구 82.0%, 300~499만원 가구 88.0%, 500만원 이상 가구 83.6%가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의 질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일자리의 질 상승 가능성 : 추이⁵⁾ >



< 일자리의 질 상승 가능성: 성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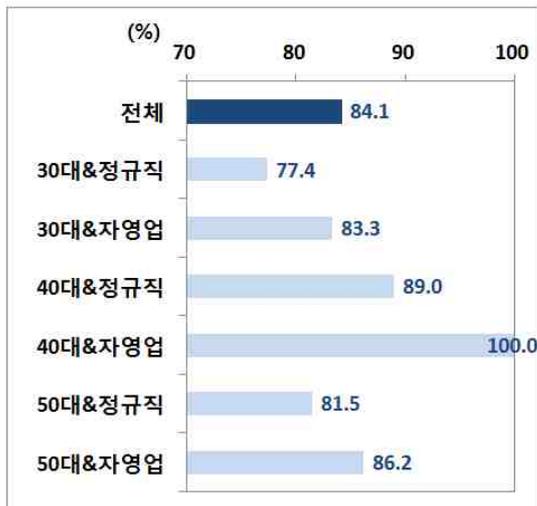
주 : %는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의 질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5) 2015년 설문결과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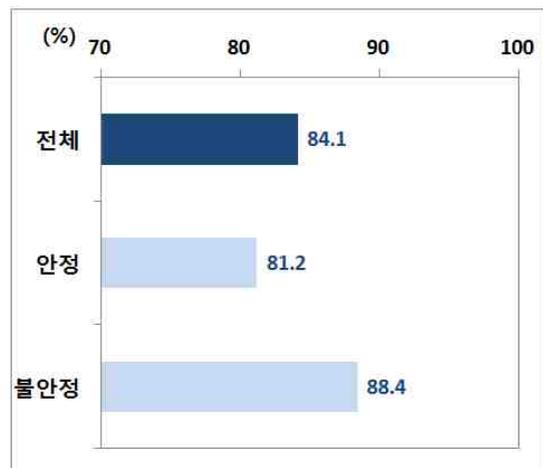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2015),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안과과제, 15-29호.

- (연령과 종사상지위별) 일자리의 질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타난 응답계층은 40대 자영업자
 - 연령별로 보면, 20대 82.3%, 30대 78.7%, 40대 90.6%, 50대 이상 85.1%가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의 질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종사상지위별로는, 정규직 81.3%, 비정규직 88.4%, 자영업 89.9%가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의 질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응답자를 연령과 종사상지위별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40대 자영업자의 100%가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의 질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여 다른 응답자보다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
- (고용 안정성별)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일자리의 질 가능성에 대해 특히 부정적으로 응답
 -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81.2%,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88.4%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전반적으로 모두 일자리의 질 상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나, 고용 안정성 여부에 따른 부정적인 응답은 약 7.2%p까지 격차가 발생

< 계층상승 가능성 : 연령과 종사상지위별 >



< 계층상승 가능성 : 고용 안정성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는 '열심히 노력해도 일자리의 질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율.

④ 국민들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가장 선호하며, 지난 조사 대비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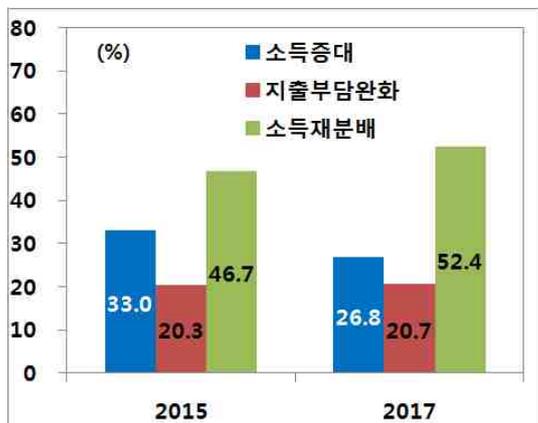
- (전체)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소득재분배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중이 52.4%로 가장 높았고, 2015년 46.7% 대비 5.7%p 상승

-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4%는 ‘고소득층 세금 확대를 통한 중산층·서민의 복지 확대’를 꼽음
-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 증대’는 26.8%, ‘사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지출 부담 완화’는 20.7%를 차지
- 2015년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응답률이 46.7%에서 52.4%로 5.7%p 상승한 반면, 소득증대 정책 응답률은 33.0%에서 26.8%로 6.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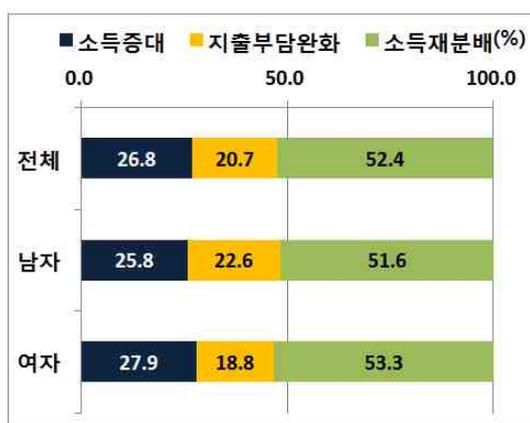
- (성별 및 월소득수준별) 성별 및 월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가장 선호

- 성별로 보면, 남성 51.6%, 여성 53.3%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남성 25.8%, 여성 27.9%가 소득증대 정책을 선호
- 월소득수준별로는 300만원 미만 가구 58.4%, 300~499만원 가구 52.8%, 500만원 이상 가구 48.7%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더 선호

< 계층상승사다리 강화정책 : 추이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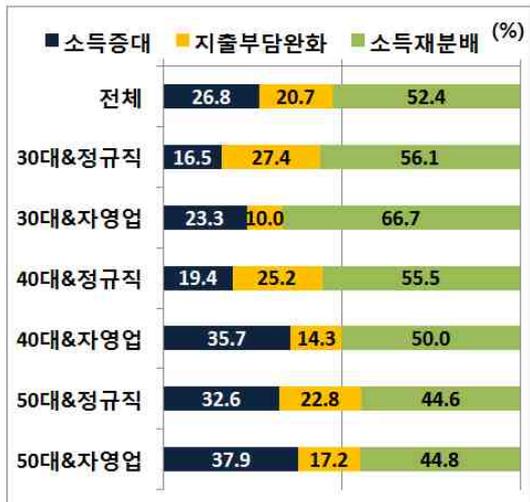
< 계층상승사다리 강화정책 :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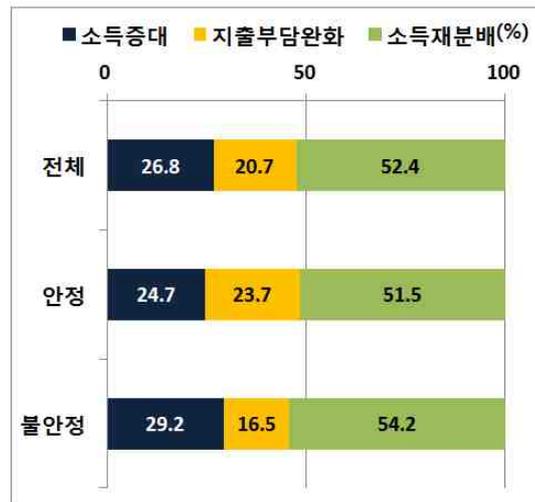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연령과 종사상지위별) 연령 및 종사상지위와 관계없이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가장 선호
 - 연령별로 보면, 20대 48.1%, 30대 57.9%, 40대 55.7%, 50대 이상 47.3%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선호
 - 종사상지위별로는, 정규직 51.6%, 비정규직 57.3%, 자영업 52.5%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선호
 - 응답자를 연령과 종사상지위별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40대 자영업, 50대 정규직 및 자영업은 소득증대 정책에 대한 선호도도 30%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고용 안정성별) 고용 안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층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소득재분배를 가장 선호
 -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 중 51.5%, 고용이 불안정한 응답자 중 54.2%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계층상승사다리 강화정책 : 연령과 종사상지위별 >



< 계층상승사다리 강화정책 : 고용안정성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6) 2015년 설문결과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함.
현대경제연구원(2015),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안과과제, 15-29호.

3. 시사점

-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으로 사회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첫째, 좋은 일자리의 창출, 교육 양극화 해소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계층상승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므로,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맞춤형 학자금 융자, 교육 재정의 확충 등이 필요

둘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 설문 결과,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소득재분배에 대한 선호도가 지난 2015년 조사보다 증가하며 과반인 50%를 넘어, 국민들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요구가 확대
-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견인하는 기능이 취약⁷⁾
-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중산층·서민의 복지를 확대하되, '일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셋째, 재취업 일자리 확대, 준비된 창업으로의 안내, 사회 안전망 강화 등으로 40대 자영업자의 재도약 유도

7) 현대경제연구원(2014),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경제주평 14-31.

- 최근 내수 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40대 자영업자의 계층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히 강화
-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40대의 경제 희망을 위해 전직 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자발적 창업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
- 고용보험 확대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산업 및 경영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해 '준비된 창업', '혁신형 창업'을 유도

넷째, 고용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검토와 재정비로 노동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

- 고용이 안정적인 응답자보다 불안정한 응답자에게서 계층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노력 못지않게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할 필요
-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및 임시직의 불평등한 해고에 대한 보호,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정책의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 **HRI**

백다미 선임 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별첨]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805명	100%	소득 수준별	200만원 이내	5.5
성별	남성	50.6		300만원 이내	16.0
	여성	49.4		400만원 이내	21.2
연령별	20대 이하	22.5		500만원 이내	17.8
	30대	26.8		500만원대 이상	39.5
	40대	25.0	자산규 모별	2억 미만	45.6
	50대 이상	25.7		2~4억 미만	30.7
가구주 직업별	정규직	64.6		4~6억 미만	15.2
	비정규직	12.8		6~8억 미만	2.5
	자영업자	19.7	8~10억 미만	0.5	
	기타	2.9	10억 이상	5.5	
가계수지	흑자가구	25.1	지역별	서울	20.7
	적자가구	23.2		인천/경기	27.6
	균형가구	51.7		대전/충청/강원	13.2
				광주/전라/제주	11.5
				부산/울산/경남	16.1
				대구/경북	10.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